

# 북한의 재정 충격, 경제적 영향은?

이종규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jklee@kdi.re.kr

## I. 서론

2020년 글로벌 팬데믹 상황은 북한에도 예외일 수 없었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매우 큰 충격이 가해졌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1년 동안 북한 당국이 보건과 방역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높은 수준의 봉쇄조치를 지속해 온 사실을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2017년부터 강화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충격이 몇 년 동안 누적된 상태에서 새롭게 직면한 팬데믹이라는 변수는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던 북한경제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국가예산 운용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시 북한 당국의 정책 여력을 위축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당대회를 앞두고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지만, 주민들의 심리적 반발, 코로나 확산 등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80일 전투’가 무리하게 추진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2020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되었던 예산 운용 계획 및 실적을 살펴봄으로써 2020년 경제정책의 방향을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이를 2021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공개된 예산 계획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망해 보도록 한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추진했던 경제정책들이 제재 충격의 심화, 보건 위기의 지속, 자연재해 발생 등 대내외 악재와 맞물려 어떻게 변화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향후 방향성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2020년 북한 재정 평가

### 1. 국가예산: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

한 국가의 재정 계획을 보면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과 같이 경제정책 및 경제조치들이 비공개로 발표되는 경우 재정에 대한 분석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역시도 북한이 자세한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해당 연도의 변화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은 경제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북한의 재정은 통상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가예산 보고 형식을 갖추어 대내외에 공개적으로 발표된다.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채택하며,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전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최종적 평가와 결산, 해당 연도의 예산에 대한 보고와 승인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때에도 국가예산의 총액은 공개하지 않고, 전년 대비 증가율 또는 계획 대비 성과만을 공표한다.<sup>1)</sup>

물론 전년 대비 증가율을 활용하여 총액을 역으로 추정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겠으나, 이 역시도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베이스(base)가 되는 해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을 고려해 계산하면 되지만, 중간에 증가율 자체가 비어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2009년 화폐개혁 등 가격 체계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기를 전후해서 총액은 물론 전년 대비 증가율까지 누락되었기 때문에 기준을 잡기 더욱 어렵다. 또한 재정은 공식 가격 및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기록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시장 가격 및 환율의 차이를 고려할 경우 실제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재정규모 자체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2020년 북한의 예산 수입 및 지출의 전년 대비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sup>2)</sup>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에서는 1월과 2월 코로나 사태가 심화되기 시작했고, 북한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4월 북한의 재정 계획 발표에는 이러한 상황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sup>3)</sup>에서 보고된 올해의 과업에서는 “인민들의

1) 과거 예산 수입과 지출액이 공개되었으나, 1995-97년 경제난, 2002년 경제관리개선조치 등을 거치면서 총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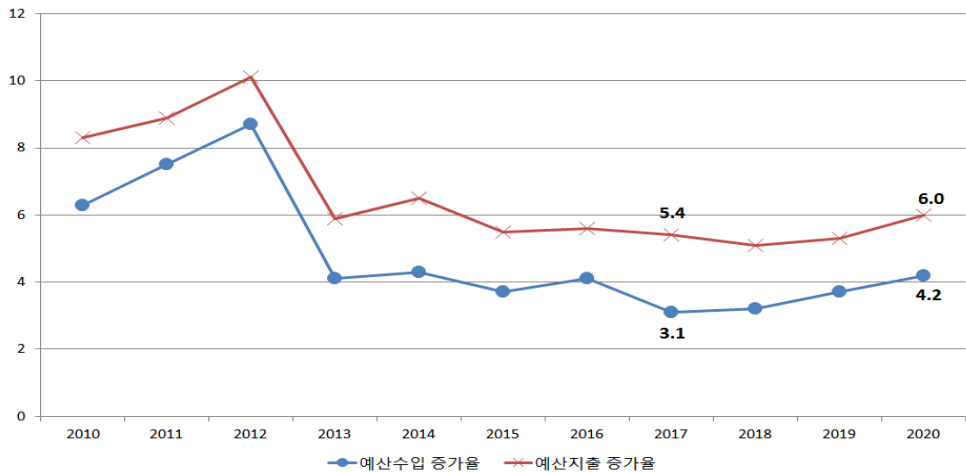
2) 한국 통계청(<https://kosis.kr/bukhan/>)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의 재정규모는 85억달러로 제시되고 있다. 만약 이를 2019년 공식환율(달러당 108.1원)로 적용할 경우에는 북한 원화 9,189억원이 된다. 다시 이를 올해의 예산수입 증가율 4.2%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2020년 재정규모는 대략 9,575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본문에서 설명한 바대로 정확하지 않은 근거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총액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고, 대신 2020년의 변화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생명안전을 첫 자리에 놓고 신형코로나 비루스감염증의 전파를 막기 위한 국가비상방역사업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으며,<sup>4)</sup> 정치국 회의에서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 “전 인류적인 대재앙으로 번지는 현실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고 이같은 환경이 우리의 투쟁과 전진에도 일정한 장애를 조성하는 조건”이라고 밝힌 것을 봐서도 알 수 있다.<sup>5)</sup> 즉, 보건위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공개된 예산수입은 전년 대비 4.2% 증가, 지출은 6.0%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북제재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2017년 3.1%와 5.4%, 2018년 4.2%와 5.1%, 그리고 2019년 3.7%와 5.7%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이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그 전부터 존재했던 대북제재의 영향, 그리고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전염병 위기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봤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 북한 당국은 어떻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고 계획했던 것일까?

[그림 1] 북한의 국가예산 수입 및 지출 증가율(전년 대비)

(단위: %)



자료: 『노동신문』, (2010년 4월 10일; 2011년 4월 8일; 2012년 4월 14일; 2013년 4월 2일; 2014년 4월 10일; 2015년 4월 10일; 2016년 3월 31일; 2017년 4월 12일; 2018년 4월 12일; 2019년 4월 12일); 『조선신보』, (2020년 4월 17일)를 토대로 정리.

3) 2020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① 재자원화법, ② 원격교육법, ③ 체내군관 생화조건 보장법, ④ 내각의 2019년 사업과 2020년 과업, ⑤ 2019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20년 국가예산, ⑥ 조직”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조선신보 2020년 4월 17일).  
 4) 『조선신보』, (2020년 4월 17일).  
 5) 『노동신문』, (2020년 4월 12일).

## 2. 예산수입: 폐지된 항목의 부활을 통한 수입 확보 노력

앞서 제기된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예산수입(올해 수입은 전년 대비 4.2% 증가)의 각 항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표 1 참고). 먼저 전체 수입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는 거래수입금<sup>6)</sup>과 국가기업이익금<sup>7)</sup>을 보자. 주요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두 항목의 증가율은 거래수입금이 전년 대비 1.1%, 국가기업이익금은 1.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북한경제에 영향을 미쳤던 2017~19년 동안에도 이들의 증가율이 각각 2.4~4.1%, 3.5~4.3%로 계획되었는데, 이번에는 1%대로 떨어진 것이다. 북한 당국도 대북제재, 팬데믹, 자연재해 등으로 수입 확보가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들의 증가 폭은 늘어났을까? 이상하게도 다른 항목들 역시 예년에 비해 증가율이 낮았다. 협동단체이익금<sup>8)</sup>은 0.4%, 부동산사용료<sup>8)</sup>는 0.1%, 사회보험료<sup>9)</sup>는 0%,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sup>10)</sup>은 0.3%, 기타수입금<sup>11)</sup>은 0.2%, 특수경제지대수입은 0.3%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 수입금’ 항목이 소폭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획치가 낮았다.

이렇게 주요 수입원을 포함하여 각각의 수입 항목 증가 폭이 거의 다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전체 예산규모를 4.2%나 늘릴 수 있다고 계획했을까? 아마도 그것은 새로운 항목의 포함, 과거 폐지되었던 항목의 부활 등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높다. 2014년 이후 사라졌던 ‘국가투자 고정재산 감가상각금’이 2020년부터 다시 포함된 것이 그 예이다. 감가상각금은 “고정재산의 가치를 마멸된 정도에 따라 생산물 원가에 포함시켜 회수하는 자금”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사용한 이후 그 마모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북한 당국은 2014년부터 감가상각금을 수입 항목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 수입금, 기타수입금, 특수지대수입금을 포함시킨 바 있는데, 2020년에는 이들 모두를 넣은 것이다.

6) 거래수입금은 “소비품의 가격에 들어있는 사회 순수익의 일부를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의 부가가치세 개념과 비슷하다고 평가된다(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령 제1183호, 2005).

7) 국가기업이익금은 법인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며, “기관, 기업소, 단체에 조성된 리윤 또는 소득의 일부를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대상에는 생산물판매수입, 건설조립작업액, 대보수작업액, 부가금, 봉사료 등이 포함된다.

8) “국가의 부동산을 리용하는 대가로 국가예산에 납부하는 자금이다. 부동산사용료의 납부는 토지, 건물, 자원을 같은 것에 대하여 한다. 납부 항목에는 농업토지사용료, 부지사용료, 생산건물사용료, 어장사용료, 수산자원증식장사용료, 자동차도로시설사용료, 자원비 같은 것이 속한다.”

9)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능력상실자와 연로보장자를 물질적으로 방조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사회보험료의 납부는 기업소, 협동단체의 공동자금과 종업원의 노동보수자금으로 한다.”

10) “국가소유의 재산을 판매하여 조성된 수입금과 자체의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없이 조성된 가격편차수입금, 대외경제관계에서 조성된 수입금을 국가 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여기에는 국가재산판매수입금(국가소유의 재산을 판매하여 조성된 수입금은 7일 안에 국가에 납부), 가격편차수입금(국가 또는 지역의 가격변동조치로 편차 수입금이 생기면 30일 안에 국가에 납부), 무역편차리익금(무역활동 과정에서 조성된 이익금을 국가에 납부), 차관 및 연불수입금(차관 또는 연불로 들어온 물자를 가격제정기관이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부가금을 더 판매수입금을 30일 안에 국가 예산에 납부) 같은 것이 속한다.”

11)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없이 조성된 수입금과 통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성된 수입금 그밖의 수입금을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여기에는 무상료역동원수입, 국가수수료, 관세, 벌금 및 물수품수입, 시효기간이 지난 채무수입, 재산보험료,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 같은 것이 속한다.”

아울러 백화점, 식당 등 봉사망(서비스시설)과 봉사업종(서비스업)을 늘려 여러 서비스 산업의 활동을 통해 예산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했으며,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 요구에 맞게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함으로써 적극적인 재정활동과 예산 납부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 기존 수입에서 누수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sup>12)</sup>

그러면 실적은 어땠을까? 올해 제8차 당대회 이후 이어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2020년 예산수입이 전년 대비 4.3% 늘어나 계획치인 4.2%를 넘었다고 공개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과거 폐지되었던 예산수입 항목의 부활(감가상각금) 등을 통해 줄어드는 예산규모를 상쇄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금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80일 전투, 지방에서의 예산 초과 납부 등을 통해 무리하게 목표를 달성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마저도 어렵다는 데 북한 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sup>13)</sup>

<표 1> 연도 및 항목별 예산수입 증가율(전년 대비)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주요 수입	거래수입금		-	7.5	3.5	4.5	2.6	3.3	2.4	2.5	4.1	1.1
	국가기업 이익금	7.7	-	10.7	6.0	7.9	4.3	4.5	3.5	3.6	4.3	1.2
나머지 수입	협동단체 이익금	4.2	3.8	5.3	5.3	4.8	3.2	1.5	1.6	0.9	1.1	0.4
	부동산 사용료	2.0	0.7	1.9	3.4	9.5	0.7	4.0	2.0	1.8	0.3	0.1
	사회보험료	1.9	0.4	1.7	-	5.1	2.8	1.1	1.2	1.2	0.2	0.0
	재산판매 가격편차 수입금	-	-	-	-	2.4	1.4	2.5	1.1	0.5	0.0	0.3
	기타수입	-	-	-	-	1.7	0.8	1.3	1.2	0.8	0.5	0.2
	특수지대 수입금	-	-	-	-	5.1	3.6	4.1	1.1	2.5	1.6	0.3
	감가상각금	2.5	1.4	2.3	2.8	-	-	-	-	-	-	추가

주: 1) 표에 표시된 수치는 통상 매년 4월 최고인민회의의 보고를 통해 발표되는 계획치임.

2) 주요 수입인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이 통상 전체 예산수입의 75~85% 비율을 차지함.

자료: 『노동신문』, (2010년 4월 10일; 2011년 4월 8일; 2012년 4월 14일; 2013년 4월 2일; 2014년 4월 10일; 2015년 4월 10일; 2016년 3월 31일; 2017년 4월 12일; 2018년 4월 12일; 2019년 4월 12일); 『조선선보』, (2020년 4월 17일)를 토대로 정리.

12) 『연합뉴스』, 「북한 세수확대 고심... "상업시설 증대 통해 예산 수입 늘려야"」, 2020년 4월 21일.

13) 올해 예산수입 계획에 대한 설명은 본고의 다음 장을 참고하라.

### 3. 예산지출: 보건부문(7.4%) 지출 증가

2020년 국가예산 지출은 전년에 비해 6% 늘리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실제로는 5.7%만 늘어나 집행되었다. 또한 전체 예산에서 인민경제비에 47.8%, 국방비에 15.9%,<sup>14)</sup> 그리고 사회문화비에 34~35%가량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sup>15)</sup> 올해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된 실적치를 보면 인민경제비 45.3%, 국방비 15.9%, 사회문화비 36.5%로 배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민경제비가 줄어드는 대신 사회문화비가 늘어난 것이다. 북한도 여러 차례 천명했듯이 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국가적인 비상방역체계를 갖추기 위해 기존에 배정된 예산이 일부 방역 관련 지출로 전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년과 비교하여 2020년 지출이 크게 늘어난 항목은 경공업, 선행 기초공업, 농수산업 등 핵심부문(5.7% → 7.2%)과 보건부문(5.8% → 7.4%)이다. 핵심부문 지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마무리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보건부문 지출은 2020년 2월부터 북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팬데믹 위기와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부문의 지출을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립경제를 보장할 수 있는 주요 공업 부문을 지원함으로써 난관을 극복하고 생산 증대를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sup>16)</sup>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속공업 부문에서는 에너지 절약형 생산과 철강재의 국내수요 보장, 화학공업 부문에서는 공장 현대화와 순천린비료공장 건설, 전력공업 부문에서는 수력발전 건설의 적극적 확대, 석탄공업 부문에서는 인민경제의 수요 보장, 철도운수 부문에서는 철도의 현대화, 건재공업에서는 국산화 비중 확대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했다. 또한 농업 부문에서는 농업발전 5대 요소,<sup>17)</sup> 축산기지 현대화, 민간의 축산 활성화 등이 언급되었고, 경공업 부문에서는 품목 다양화, 상품 질 제고, 소비품 생산에서의 국내 원료 비중 확대 등이 강조되었다. 특히 당 창건 기념 75주년인 10월 10일까지 평양종합병원건설,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산소분리기 설치 등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업으로 꼽기도 했다.<sup>18)</sup>

눈여겨보아야 할 항목은 역시 보건 분야이다. 과거에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 급격하게

14) 여기서 국방비는 군사 및 부대 유지비 등 내각이 지출하는 군의 경상유지비를 말한다. 하지만 북한 국방비 지출의 수치가 급격하게 바뀌는 해가 많이 관찰되어서 신뢰성에 대해 항상 의문이 제기된다. 일례로 1966년 전체 예산 지출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했으나, 1967년에는 갑자기 30.4%로 늘어난다. 그러다가 남북대화가 시작된 1972년부터 17%로 떨어지고, 그 이후로는 점차 비중이 낮아지다가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994년에는 11.4%까지 내려가게 된다. 비중이 다시 조금씩 높아져서 2003년 이후로는 출근 15~16%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인다(통일원, 1996, pp.141~142).

15) 통상 북한의 예산지출에서 인민경제비는 55~70%대까지 기록하기도 했으나, 경제난 이후로는 40%대 수준으로 하락했다. 대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비(인민적시책비+사회문화사업비)는 35~40%를 차지해 왔다(통일원, 1996, pp.139~140).

16) 『조선신보』, (2020년 4월 17일).

17) 종자 혁명, 과학 농사, 새 땅 찾기,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당적 지도 강화.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종합병원과 관련해서는 외벽 공사가 마무리 된 것만 확인이 될 뿐, 나머지 작업들은 아직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Williams and Makowski, 2020. 12. 23, <https://www.38north.org/2020/12/wonsanpyongyang201223/>, 검색일: 2021. 1. 8.). 북한 언론도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높아진 사례(2012년 8.9%, 2017년 13.3%)가 있기 때문에 2020년의 증가폭이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 당국이 예산을 계획했던 시점에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오래, 그리고 심한 강도로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보건부문 지출은 이때의 계획보다 더 늘어났거나 다른 부문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전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sup>19)</sup> 제7기 제5차 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이미 올해의 과업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당 중앙위원회, 국무위원회, 내각이 공동으로 ‘세계적인 대유행전염병에 대처하여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를 결정서로 채택한 바 있으며,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막기 위한 의학적 감시와 격리사업을 강도 높게 진행”하는 한편,<sup>20)</sup>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또한 각종 보고 및 보도 등을 통해 나타난 북한 당국의 철저하고 편집증적인 대응 모습은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표 2> 연도 및 항목별 예산지출 증가율(전년 대비)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민 경제비	경공업	10.1	12.9	9.4	5.1							
	선행 기초공업	7.3	13.5	12.1	7.2	5.2	5.1	4.8	4.5			
	농업						4.2	4.3	4.4	5.5	5.7	7.2
	수산업					5.1	6.8	6.9	6.8			
	산림	-	-	-	-	-	9.6	7.5	7.2			
	과학기술	8.5	10.1	10.9	6.7	3.6	5.0	5.2	8.5	7.3	8.7	9.5
	기본건설	-	15.1	12.2	5.8	4.3	8.7	13.7	2.6	4.9	6.6	6.2
인민적 시책비	교육			9.2	6.8	5.6	6.3	8.1	9.1	5.9	5.5	5.1
	보건	6.2	6.0	8.9	5.4	2.2	4.1	3.8	13.3	6.0	5.8	7.4
	사회보장			7.0	3.7	1.4	-	-	-	-	-	-
사회 문화 사업비	문화예술	-	-	6.8	2.2	1.3	6.2	7.4	4.6	3.0	4.1	5.8
	체육	-	-	6.9	6.1	17.1	6.9	4.1	6.3	5.1	4.5	4.3

주: 표에 표시된 수치는 통상 매년 4월 최고인민회의의 보고를 통해 발표되는 계획치임.

자료: 『노동신문』, (2010년 4월 10일; 2011년 4월 8일; 2012년 4월 14일; 2013년 4월 2일; 2014년 4월 10일; 2015년 4월 10일; 2016년 3월 31일; 2017년 4월 12일; 2018년 4월 12일; 2019년 4월 12일); 『조선신보』, (2020년 4월 17일)를 토대로 정리.

19)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부문별 지출 실적이 당초 계획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 수치로 밝히지는 않는다. 다만, 인민경제비 비중이 줄어들고 사회문화비가 늘어난 것을 보면 보건부문 지출이 계획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을 가능성은 있다.

20) 『조선신보』, (2020년 4월 17일).

### III. 2021년 북한 재정 전망

#### 1. 최근 정책 특징: 교역통제, 노동통제, 환율통제

최근 북한의 정책대응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방역을 위한 교역통제(봉쇄조치), 속도전으로 대표되는 노동통제(80일 전투), 시장에서의 인위적인 환율통제(외화사용 제한)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각각 북한의 재정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정책대응이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교역통제는 예산수입의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기타수입금, 특수지대수입금 등에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80일 전투는 시장의 주민 경제활동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국가예산 수입을 줄게 하는 한편, 중앙의 예산지출을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게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이에 대응하여 비공식부문에서 외환거래를 제한하거나 환율을 인위적으로 절상시킴으로써 원화 기반의 예산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2020년 북한은 코로나에 대해 그 어느 전염병 위기보다도 강력한 조치로 대응했다. 이는 2014년 에볼라나 2015년 메르스 사태와 비교해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sup>21)</sup> 먼저 에볼라 사태는 2014년 9월 북한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주의가 공식적으로 처음 환기된 이래 10월 평양에 대한 출입이 제한되고, 곧바로 며칠 후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무역에 있어서 검역 조치가 강화되고, 김정일 전 위원장 3주기 추모, 태권도 60주년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초청이 취소되기도 했다. 사태가 조금씩 진정되고, 2015년 3월 단동-신의주 철도 여행이 재개되면서 제한 조치도 점차 완화되었다. 따라서 북한이 에볼라 사태에 직접 영향을 받은 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 정도까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북한의 대중수입은 전년도 같은 기간의 약 91%까지 유지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물품 공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메르스 사태는 2015년 6월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체온 카메라 및 마스크 지원을 요청하고, 2주 후 평양에 대한 출입 제한과 국경통제가 강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7월에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21일 격리조치 등)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외부 상황이 개선되면서 2016년 1월 5일 체온 확인을 포함한 각종 검역조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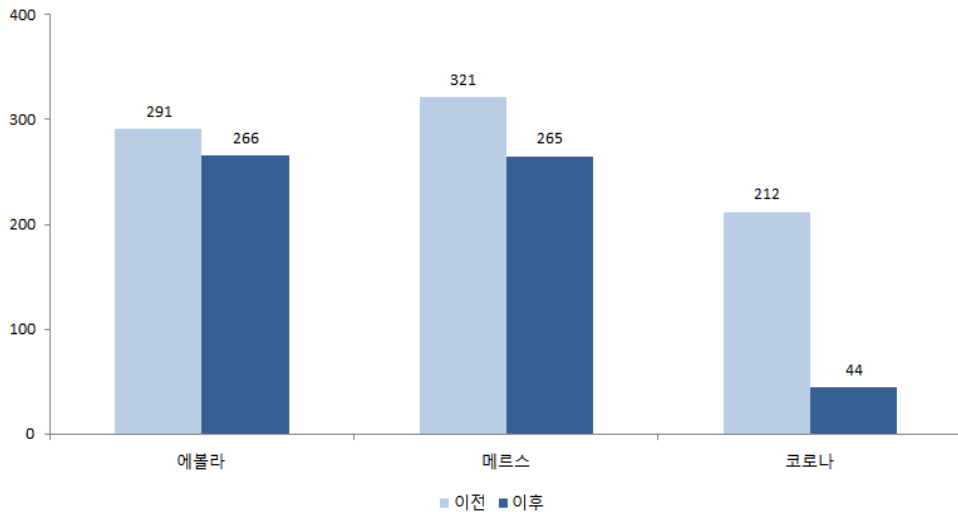
21) Cha, Victor, "Splendid Isolation: North Korea and COVID-19," Newsletter,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20. 4. 30(<https://www.csis.org/analysis/splendid-isolation-north-korea-and-covid-19>, 검색일: 2021. 12. 8).

중단되었고, 점차 사태도 마무리되었다. 따라서 북한경제가 메르스의 충격에 영향을 받은 시기는 2015년 6월 중순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총 6개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역시도 북한의 대중수입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3%를 유지하면서 외부로부터의 물품 공급에 직격탄을 맞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코로나 사태의 충격은 기간과 정도에 있어 앞선 두 사례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기간은 2020년 1월 조금씩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12개월이 넘었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무엇보다도 북한경제가 외부로부터 받는 물품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중수입의 감소폭을 보면 충격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sup>22)</sup> 코로나 영향 기간인 2020년 1~11월까지의 북한 대중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의 21%에 불과하다. 특히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도 수입이 그 전년에 비해 2017년 104%, 2018년 67%, 2019년 117%까지 유지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미 제재로 어려운 북한경제, 더 나아가 북한의 재정에 얼마만큼 큰 충격으로 작용하게 될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림 2] 전염병 위기 전후 북한의 월평균 대중수입액 비교

(단위: 백만달러)



주: 1) 에볼라(2014년 10월~2015년 2월): 북한의 대중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의 91% 유지.  
 2) 메르스(2015년 6월~2015년 12월): 북한의 대중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의 83% 유지.  
 3) 코로나(2020년 1월~2020년 11월, 현재 진행형): 북한의 대중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의 21% 기록 중.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중국해관통계를 토대로 계산(검색일: 2021. 1. 2).

22) 대중수출의 경우 이미 대북제재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최근 북한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80일 전투를 강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주체들의 노동 기회에 통제를 가했다는 점이다.<sup>23)</sup> 특히 대외적으로 전염병 위기에 과도하게 대응하던 북한의 모습과 내부적으로는 속도전을 강행하는 모습은 서로 모순되게 보일 정도로 달랐다. 80일 전투로 주민들이 집단으로 모일 기회가 많아지면 전염병이 확산될 확률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020년 하반기가 특별한 시점이었다는 측면에서 북한 당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제8차 당 대회가 2021년 1월에 예정되어 있었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년)의 마지막 해로서 성과를 내야 했으며, 여름과 가을에 걸쳐 수해와 태풍이 집중되면서 피해복구 사업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시점이었다. 즉, 내부적으로는 방역보다 가시적인 성과 및 치적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 두드러지는 최근 북한정책의 특징은 환율에 대한 인위적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2020년 10월 말부터 북한의 환율은 급격하게 평가절상되는데, 10월 15일까지도 8,000원 정도였던 환율이 11월 28일 6,400원까지 떨어졌고, 새해 들어서도 6,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sup>24)</sup> 현재 북한의 상황을 생각하면 외화가 부족하여 환율이 올라가야 정상이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위안화 평가절상, 무역 중단으로 인한 외화수요 감소, 환율상한 설정, 장마당에서의 외화거래 금지 등의 가설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급격한 평가절상이 시장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라기보다 인위적인 조정 또는 통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자명해 보인다.<sup>25)</sup> 일부 북한 문헌에서는 환율의 인위적인 조정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고, 시중 화폐를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논리가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sup>26)</sup> 일반 경제학에서는 통화조절을 통해 환율이 변화될 수 있다고 보는 데 반해, 북한에서는 반대로 환율의 인위적인 조정을 통해 통화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어쨌든 최근 북한의 환율 평가절상 이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인위적인 통제에 의해 나타난 변화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23) 2020년 10월 5일 북한의 정치국회의에서 80일 전투를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 과업으로는 비상방역사업, 수해복구사업, 농사결속, 각 인민 경제 부문별 과제들이 제시되었다(『통일뉴스』, 「80일 전투, 첫 달 목표 달성... 연속 공격전에 나서야...」, 2020. 11. 3. <http://www.tongilnews.com>, 검색일: 2020. 12. 27).

24) Daily NK(<https://www.dailynk.com/>), 검색일: 2021. 1. 15).

25) 이에 대한 자세한 원인은 『KDI 북한경제리뷰』 본 호의 다른 캡틴인 이석, 「북한의 경제위기, 어디까지 진행될까?」와 최지영, 「시장의 물가·환율 변동을 통해 본 북한경제」를 참고하라.

26) 예를 들면 김성철(2019, p.49)은 “통화조절수단으로서의 환율조정은 국내화폐의 시세를 올리거나 내리는 방법으로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이는 것이다. 국내화폐의 시세를 높이면 외화를 대가로 하여 내화를 유통계에 내보내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낮추면 내화가 유통계에 많이 방출되게 된다. 또한 국내화폐의 시세가 높으면 중앙은행이 적은 외화를 가지고도 많은 내화를 흡수할 수 있고, 반대로 낮추면 주어진 외화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적은 내화를 흡수한다. 이것은 환율조정도 국내화폐의 유통량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게 하는 수단의 하나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언급한다.

## 2. 예산수입: 재정 충격이 불가피

앞서 우리는 2020년 예산수입을 분석하면서 북한 당국이 어떻게 예년과 비슷하게 예산수입을 4.2% 증가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실제로 4.3%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가졌었다. 특히 최근 북한이 처한 대내외 상황과 그에 대응하는 정책을 보면 예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감가상각금 부활, 재정관리 강화, 80일 전투 등을 통해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했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즉, 2020년에는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별다른 정책적 대안이 없는 2021년이다. 실제로 올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발표된 예산수입 계획은 전년 대비 0.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자 처음으로 나타난 0%대의 증가율이기도 하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5.0%), 본격적인 제재 시기(3.3%), 코로나 확산 시기(4.2%)와 단순 비교만 해봐도 올해 나타나게 될 재정 충격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모든 역량을 동원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정책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번 예산수입 계획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표 3〉 2021년 항목별 예산수입 증가율(전년 대비)

(단위: %)

		2012~16 (김정은 집권 초기)	2017~2019 (본격 제재 이후)	2020 (코로나 사태)	2021 (재정 충격)
	수입 증가율	5.0	3.3	4.2	0.9
주요 수입	거래수입금	4.3	3.0	1.1	0.8
	국가기업이익금	6.7	3.8	1.2	1.1
나머지 수입	협동단체이익금	4.0	1.2	0.4	0.4
	부동산사용료	3.9	1.4	0.1	0.0
	사회보험료	2.7	0.9	0.0	0.3
	재산판매/가격편차 수입금	2.1	0.5	0.3	0.1
	기타수입	1.3	0.8	0.2	0.6
	특수지대수입금	4.3	1.8	0.3	0.2
	감가상각금	2.6	-	추가	0.1

주: 1) 표에 표시된 수치는 최고인민회의의 보고를 통해 발표되는 계획치이며, 2020년 실적치는 4.3%였음.

2) 기간별 연평균치의 단순 비교이기 때문에 항목 간 합산 또는 항목에 대한 누락이 존재할 수 있음.

자료: 『노동신문』, (2012년 4월 14일; 2013년 4월 2일; 2014년 4월 10일; 2015년 4월 10일; 2016년 3월 31일; 2017년 4월 12일; 2018년 4월 12일; 2019년 4월 12일; 2021년 1월 18일); 『조선신보』, (2020년 4월 17일)를 토대로 정리.

### 3. 예산지출: 재정 충격으로 정책대응 여력 약화

2021년 북한의 재정지출은 1.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1%대까지 내려간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6.7%), 본격적인 제재 시기(5.3%), 코로나 확산 시기(6.0%) 등 다른 기간들과 비교해 보면 올해 북한의 정책 여력이 얼마나 약화되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전체 예산에서 문화사업비는 33.9%, 국방비는 15.9% 배분하기로 했는데, 예년의 수준을 감안한다면 인민경제비는 48~50% 정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작년에는 보건부문에 계획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인민적시책비의 비중이 높아졌는데, 올해는 인민경제비의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지난해 7.2%에 달했던 핵심부문은 0.9%까지 낮아졌고(경공업, 선행 기초공업, 농업), 김정은 위원장 집권 내내 강조되었던 과학기술부문도 9.5%에서 1.6%까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해 7.4% 증가했던 보건부문도 올해는 2.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4> 2021년 항목별 예산지출 증가율(전년 대비)

(단위: %)

		2012~16 (김정은 집권 초기)	2017~2019 (본격 제재 이후)	2020 (코로나19 사태)	2021 (재정 충격)				
	지출 증가율	6.7	5.3	6.0	1.1				
인민 경제비	경공업	6.7	5.5	7.2	0.9				
	선행 기초공업								
	농업								
	수산업								
	산림								
	과학기술					6.3	8.2	9.5	1.6
	기본건설					8.9	4.7	6.2	-
인민적 시책비	교육	7.2	6.8	5.1	3.5				
	보건	4.9	8.4	7.4	2.5				
	사회보장	4.0	-	-	-				
사회 문화 사업비	문화예술	4.8	3.9	5.8	2.7				
	체육	8.2	5.3	4.3	1.6				

주: 1) 표에 표시된 수치는 최고인민회의의 보고를 통해 발표되는 계획치이며, 2020년 실적치는 5.7%였음.

2) 기간별 연평균치의 단순 비교이기 때문에 항목 간 합산 또는 항목에 대한 누락이 존재할 수 있음.

자료: 『노동신문』, (2012년 4월 14일; 2013년 4월 2일; 2014년 4월 10일; 2015년 4월 10일; 2016년 3월 31일; 2017년 4월 12일; 2018년 4월 12일; 2019년 4월 12일; 2021년 1월 18일); 『조선신보』, (2020년 4월 17일)를 토대로 정리.

## IV. 결론

### 총평: 북한 재정 상황의 변곡점, 2021년

한 국가의 재정계획을 보면 정책의 방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북한의 2020년과 2021년의 재정을 자세히 살펴봤다. 전례 없던 대북제재, 기간과 강도 면에서 과거와 비교도 되지 않던 전염병 위기, 여름과 가을에 걸친 자연재해는 북한의 경제상황을 압도했다. 이러한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2020년 북한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 수입(4.2%)과 지출(6.0%) 계획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잡았고, 실적 역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수입: 4.3%, 지출: 5.7%).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7년 이후의 시점(수입: 3.1~4.2%, 지출: 5.1~5.7%)과 비교해도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그림에도 불구하고, 예산수입에 대한 각 항목 증가율이 매우 낮았다. 국가예산규모 증가율 계획이 4.2%였으면 그에 걸맞게 각 항목이 늘어났어야 했는데, 이 증가율이 모두 낮았던 것이다. 특히 예산수입의 83%를 차지하는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의 증가율이 각각 1.1%와 1.2%를 기록할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이는 예년과 비교하여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셋째,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새로운 예산수입 항목 포함, 과거 폐지되었던 항목의 부활, 기존 예산수입의 누수 방지 등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상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4년 이후 사라졌던 ‘국가투자 고정재산 감가상각금’을 2020년부터 다시 포함시키는 한편, 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기업의 재정관리 강화 등 기존 예산수입에서 누수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

넷째, 북한의 예산 지출은 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실제로는 5.7% 늘어났다. 당초 계획보다 인민경제비(47.8% → 45.3%)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사회문화비(약 34% → 36.5%)의 비중을 높였다. 이는 팬데믹 위기 및 그에 대한 대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항목은 핵심부문(5.7%→7.2%)과 보건부문(5.8%→7.4%)이다. 핵심부문의 지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마무리와, 그리고 보건부문 지출은

팬데믹 위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예산을 계획하던 시점에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오래, 또한 이렇게 강한 강도로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건부문 지출이 계획보다 다소 늘어났을 가능성은 있다.

2020년 북한의 정책 역시도 대내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중요한 특징은 방역을 위한 교역통제(봉쇄조치), 속도전으로 나타나는 노동통제(80일 전투), 통화량 조절 및 시장의 자금 흡수를 위한 환율통제(외화사용 제한)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향후 북한의 재정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었다.

첫째, 봉쇄조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했다. 외부로부터의 물품 공급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중수입이 에볼라로 인한 제한 시기에는 전년 같은 기간의 91%, 메르스 시기는 83%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 반해, 코로나 시기에는 21%로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얼마나 강력한 봉쇄조치를 시행했는지, 그리고 전염병 위기가 북한경제에 얼마나 큰 충격으로 작용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둘째, 여건이 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80일 전투를 감행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노동 기회에 통제를 가했다. 제8차 당대회가 2021년 1월에 예정되어 있었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년)의 마지막 해로서 성과가 필요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복구가 시급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노동통제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력한 봉쇄조치와 모순되어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북한 당국으로서의 가시적 성과와 치적을 최우선과제로 두어야 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인위적인 환율통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0월 북한의 원달러 환율에 갑작스러운 평가절상(8,000원대 → 6,000원대)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 새해까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사실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환율은 평가절하되어 상승해야 정상인데, 흐름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환율조정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시중 화폐를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문헌이 자주 관찰되는 것을 보면, 이러한 변화가 인위적인 통제에 의해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2021년 북한의 재정과 정책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 북한에 있어서 올해는 새롭게 확정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걸음을 내딛는 해로서 의미를 가진다. 2021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당대회 기간 동안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년)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올해부터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그만큼 경제성과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재정 상황을 보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첫걸음부터 장애물을 만난 격이다. 먼저 예산수입은 작년에 4.3%(실적치) 증가했으나, 올해는 0.9%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자 처음으로 나타난 0%대 증가율이다. 특히 작년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소진하여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재정 측면에서의 충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충격은 고스란히 지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작년에 5.7%(실적치) 증가했던 예산지출은 올해 1.1%밖에 늘어나지 못했으며, 그동안 우선시해 왔던 핵심부문과 과학기술부문도 각각 0.9%, 1.6%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만큼 올해 북한의 정책대응 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중앙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재정이 특정 사업에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과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년)에서는 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과 기타부문(중화학공업, 경공업, 농수산업, 국토관리 등)에 걸쳐 다양한 목표를 설정했지만(이종규, 2018), 이번 새로운 5개년 계획(2021~25년)에서는 유독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만이 강조되기도 했다.

종합하면, 강력한 대북제재 속에서 그럭저럭 버티어 오던 북한의 재정과 정책대응이 올해는 변곡점을 맞이했다. 자강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북중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경제난에 더해진 재정난을 돌파하고자 시도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대내외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마저도 당장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국내의 비공식부문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통제 중심으로 흐르던 최근 정책기조에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올해 북한 당국으로서는 비공식부문에 대한 통제를 완화함으로써 재정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통제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주체들을 압박함으로써 재정을 확보할 것인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석진·김갑식,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 평가」, 『온라인시리즈』, CO 17-10, 통일연구원, 2017. 4. 14.
- 『연합뉴스』, 「북한 세수확대 고심...상업시설 증대 통해 예산 수입 늘려야」, 2020년 4월 21일.
- 이석, 「북한의 경제위기, 어디까지 진행될까?」,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21년 1월호, 2021.
- 이승열, 「북한 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분석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707호, 2020. 4. 29.
- 이종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북한의 경제정책 대응 분석』, 정책연구시리즈 2018-09, 한국개발연구원, 2018.
- 조영기, 「북한의 국민소득 및 재정」; 북한경제포럼 편, 『현대북한경제론: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도서출판 오름, 2005.
- 최지영, 「시장의 물가·환율 변동을 통해 본 북한경제」,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21년 1월호, 2021.
-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통일원, 1996.
- 홍민, 「북한 당 정치국 회의 제14기 제3차 최고인민회의 분석」, 『온라인시리즈』, CO 20-06, 통일연구원, 2020. 4. 14.
- KDB 산업은행, 「제V편 중공업」, 『2020 북한의 산업 II』, KDB 산업은행, 2020.
- 〈북한문헌〉
- 김성철, 「통화조절수단들과 그 활용에서 나서는 문제」, 『경제연구』, 2019년 제3호, 과학백과사 진출판사, 2019.
- 『로동신문』, 2010. 4. 9; 2011. 4. 7; 2012. 4. 14; 2013. 4. 2; 2014. 4. 10; 2015. 4. 10; 2016. 3. 31; 2017. 4. 2; 2018. 4. 12; 2019. 4. 12; 2021. 1. 18.
- 『조선신보』, 2020. 4. 17.
- 『조선중앙연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국가예산수입법」,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3호, 2005. 7. 6.

〈웹사이트〉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접속일: 2021. 1. 2).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접속일: 2021. 1. 2).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접속일: 2021. 1. 2).

한국통계청(<https://kosis.kr/bukhan/>, 접속일: 2021. 1. 2).

CSIS(<https://www.csis.org>, 검색일: 2021. 12. 8).

Daily NK(<https://www.dailynk.com/>, 접속일: 2021. 1. 15).

38 North(<https://www.38north.org/2020/12/wonsanpyongyang201223/>, 접속일: 2021. 1. 8).